**‘책 읽는 케이티’ 다섯 번째 독서모임 《타인의 해석》**

**🕮 발제자's letter 🕮**

**안녕하세요. 말콤 글래드웰의 《타인의 해석》 발제자 박진형입니다. 타인을 쉽게 의심하지 않고 필요이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이 책 어떠셨나요. 번역투이기도 하고, 내용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할 듯 하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중간 중간 학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들 잘 읽으실 수 있을까 내심 걱정했습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요즘 코로나 속에서 대화하는 시간들, 교류하는 시간들도 줄어들고 심지어 서로를 경계하는 상황 속 놓여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은 더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언택트가 이슈의 정점에 달하면서 타인과의 거리감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시점에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서 타인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타인의 해석》을 읽으며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 돌아보고, 어떤 점을 활용할 수 있을 지 생각해 보아요.**

**1. 음주상태의 범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인과의 첫 만남에서 과음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상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 사람의 본모습이라 판단 혹은 본모습은 아니겠다고 추측)**

**-알코올은 근시상태를 야기한다 (p.252)**

**2. 일부 시민들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판사를 AI로 바꿔라"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를 법원 판결 보조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률적 판단을 수행하는 행위는 인간의 고유한 통찰력이 필요한 지적 작업이다"라는 이유로 판사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판사와 인공지능 중 누가 공정한 판결을 위해 더욱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책에 등장한 '진실기본값 이론', '투명성 가정' 이외에 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다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솔로몬과 인공지능의 대결>컴퓨터가 뽑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뉴욕시 판사들이 석방한 사람들보다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25퍼센트 낮았다.(p.63)**

**3. 진실기본값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진실을 기본값으로 갖고, 상대하는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가정합니다.**

**진실기본값 모드에서 벗어나려면 강력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계기'를 경험한 사례가 있나요?**

**당신은 알았어야 핬다. 온갖 종류의 위험 신호가 있었다. 당신은 의심을 품었다..... 당신을 믿음의 경계 너머로 밀어낼만큼 충분한 위험신호가 있었는가? 만약 없었다면, 진실을 기본값으로 삼은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다. (p.107)**

**4. 아래의 내용을 볼 때, 앞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서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표정과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여러 형태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거치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활용해야 할까요?**

**저자는 타인에 대해 판단할 때 확신하지 말라는 주제를 전달하면서 컴퓨터 분석 시의 정확성을 사례로 제시합니다.**

**- 판사보다 더 정확하게 피의자들의 성향(범죄발생고위험군)을 분석해낸 컴퓨터의 존재**

**- 퍼게이트의 안면 동작 부호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프렌즈>> 배우들의 표정을 분석한 결과**

**5. 여러분은 낯선 사람을 만날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내리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자신만의 기준이 있나요? (외모, 분위기, 행동, 말투 등) 그리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니 상대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판이하게 달랐던 적이 있다면 그때 깨달았던 점이 있나요?**

**“우리는 몇 가지 단서를 설렁설렁 훑어보고는 다른 사람의 심중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여긴다. 낯선 이를 판단하는 기회를 덥석 잡아버린다. 물론 우리 자신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은 미묘하고 복잡하며 불가해하니까. 하지만 낯선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타인의 해석을 읽고 나서 공적인 용도로 타인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책 《타인의 해석》에서 얻은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은 채용과정 중 ‘인성 면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p.205**

**판사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워커는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사는 워커가 솔직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무슨 뜻일까? (~중략~) 워커를 직접 본 것은 판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해가 되었다. 워커가 여자 친구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고, 단지 총이 발사되지 않아서 살인에 실패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해명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4개월 뒤, 보석 중이던 워커는 여자 친구를 총으로 살해했다.**